

활력이 있고
쾌활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法人 서울특별시중로구원남동103번지
인쇄인 金在克 TEL. 3673-2851~4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2월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61號 THE FISHING PORT NEWS 2001年 5月 25日(金曜日) (1)

올 여름 어항시설 집중방재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 대비기간' 설정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의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재해대비 활동계획을 수립, 산하기관 단체에 통보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5년간의 해양수산분야 재해현황분석 자료에 의하면 태풍·폭풍·호우·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총 26회로서 연평균 5회 정도가

발생, 그중 여름철(6-9월)이 연평균 4회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328억원으로 이에 대한 복구비는 연평균 653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그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비가 전체의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는 수산생물, 수산증양시설, 어항시설, 어망·어구 등의 순으로 나타

남에 따라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재해 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태풍 등 재해 내습시에는 즉각 본부와 11개 지방청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기민한 상황대처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었다. 또한 실제상황에 대비하여 6월중에 국방부 해경 시·도 등 유관기관간 사전 모의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대처능력을

을 배양하는 한편,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굴함과 아울러 지도·단속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근해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로 하여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를 발견시에는 적극 신고토록 신고요령 등을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어업협정 발효 이후에는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중국어선

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서·남해상에 전진배치하고 헬기를 활용한 항공감시도 강화하는 등 공·해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부족한 어업지도선 및 경비정 경비행기 등 지도·단속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대해 벌금을 대폭 상향 부과하는 등 우리 해양주권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

6월12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국어항협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타워호텔 1층 켈코바홀에서 '어항개발이 어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제로 제4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제3회 회의에 이어 중국측이 옵서버로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 사카이시나오(坂井 淳) 전국어항협회장을 비롯한 어항어촌관계자 8명, 중국 리엔량(李彦亮) 농업부 어업국 어항감독관리처 처장 등 3명 그리고 한국의 어항어촌 관련 공

무원, 시공 엔지니어링업체, 연구 학계 등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중국대표단은 회의에 이어 제주지역 어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 일본의 어항어촌건설기술연구소 우가진 요시노리(宇賀神義宣) 조사연구부장, 중국의 리엔량 처장과 중국수산과학연구원 어업공정연구소 천쯔롱(陳自榮) 고급공정사가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등 사망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예방법으로는 만성간질환자 당뇨환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비브리오패혈균은 -5℃ 이하의 저온 또는 60℃ 이상의 고온과 수돗물 및 식초에 약하므로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 저온·저장 또는 가열처리를 하든지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먹으면 탈이 없다. 특히, 어업인들은 수산물을 취급할 때 수산물에 상처가 나지 않고 신선하게 0℃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얼음에 저장하고, 위관장 어시장에서는 어패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항포구의 불결한 하수를 사용하여 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리시에는 비브리오균은 저온과 민물에 약하므로 0℃ 이하로 저온보관하거나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도마 칼행주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수산업 부문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수산업도 이러한 새로운 전환기에 적극 합류해야 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발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과거의 인적·물적 요소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에 기초한 새로운 지식기반 수산업의 창출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는 6월 12일 개최되는 제4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는 바로 이의 한 연장선상에서 대단한 의미를 갖는 행사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수산업에 있어 지형학적으로 묘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이 '어항개발이 어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란 공통된 주제를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사실은 수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지식기반의 창출을 마련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흥분을 감추기가 어렵다. 소위 말하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화의 바람이 이제야 겨우 우리의 피부를 스치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수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그리고 희망과 꿈이 있는 21세기형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각과 노력,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기에 이번 회의에 거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앞두고

사고의 다양성과 인공적인 위험기를 마련

은 기대는 마냥 클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물만 개구리일 수도 있는 우리의 어항산업 앞에 각기 다른 일본 중국의 여러 가지 연구 사례와 상황 설정은 사고의 다양성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안목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이번 회의가 우리에게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의 진정한 목적은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중지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즉 물고기를 얻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을 배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다. 미래의 수산업을 생각한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를 적극 수용하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점은 신속하게 과감히 버려버리는 용기를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배운다면 더할나위 없는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중 3국은 지형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독특한 연계성이 있음을 감안, 이번 회의를 통해 상대방 국가를 이해하고 수산업을 이해하고 나아가 어항인들끼리 교류협력과 우호증진 및 친선도모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바램이 없을 것 같다. 이번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해 본다. 특히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감에도 항상 진지한 논의와 우정을 잊지않는 일본대표와 아울러 중국 대표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한 교류기간동안 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한번 모아 보여주도록 하자.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예방

해양수산부는 최근 여름철 수온이 높아지면서 비브리오 패혈균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의 예방을 위해 '하절기 수산물 알고 먹읍시다'라는 홍보용 팸플릿 10만부를 제작·배포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과 수산물 취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균(Vibrio Vulnificus)의 발병 및 감염경로는 오염된 연안바다 갯벌에서 잠복해 있던 비브리오 원인균이 18-20℃ 이상으로 수온이 올라가는 5-11월경에 주로 나타나므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에 오염된 해수나 갯벌 등을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이 질환은 만성간질환자 당뇨환자 알콜중독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어패류

를 날것으로 먹거나, 해안지역에서 낚시 또는 어패류 손질시 피부를 통하여 이 균이 감염되어 발병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친 후 오한 발열 등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 등이 동반되면서 다양한 피부병이 발생하는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외국 불법조업 단속대책 수립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한·중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부로 발효되는 등 국제해양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조업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은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어업협정타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협정 발효 초기단계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강화를 위해 그동안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2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

동

정

연세대 보건대학원 최고위자 과정서 강연



鄭宇澤 해양수산부 장관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3일 어업인 후계자 전국 대회에 참석, 7일에는 국립 수산진흥원 80주년 기념식에 참석, 9일에는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조합장연찬회에 참석 '수협 경영정상화 방향 및 수산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 10일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고위자 과정에서 강연, 16일에는 항만개발계획 재수립관련 대토론회에 참석, 17일에는 오병주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의 예방을 받고 선원 교육기관의 발전방향 및 우수 해양인력 양성 방안에 관해 논의, 25일에는 수산물인증협회 주최 우수농산물 한마당 대축제에 참석 이어 2001년도 해양사고방지 세미나에 참석.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5월4일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명예총재 초청 정책위원회 임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 10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양전략연구소 주관 '북한은 개방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 16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해양정책포럼 '한국의 비전은 IT에 있다'에 참석, 21일에는 롯데호텔

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2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에 참석, 29일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관 김한길 장관 초청 세미나에 참석, 31일에는 제6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

▲정삼욱 수협중앙회장은 5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5월2일 제38회 법의날 기념식 및 범죄없는 마을 시상식에 참석, 4일에는 프로야구단 광주연고유지 대책 위원회의에 참석, 10일에는 제4회 송원배 배구대회를 개최, 11일에는 부산시 범죄예방위원회 초청오찬에 참석,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 24일에는 광양에서 열린 한국실업탁구연맹전에 참석 선수단을 격려, 25일에는 산업경제인협회 간담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10일 월간 건설저널 창간식에 참석,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16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플러스복권 출시기념식에 참석, 24일에는 한국능력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3일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임원회의에 참석, 4일에는 제2회 서석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 15일에는 4H본부 2001년도 제2차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8일 나주종합체육관에서 펜싱대회 개회식을 거행.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거행, 3일에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임원회의에 참석, 4일에는 프로야구단 광주연고유지 대책위원회의에 참석, 14일에는 전국대학생 통일문제학술회의에 참석, 18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 23일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25일에는 광주 전남지역 시민단체대표 초청간담회에 참석, 29일에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초청간담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18일 해남우항리 공룡박물관 공사현장에 출장. ▲송재성 주식회사상호종합건설 회장은 5월7일 여수 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파견 수산서기관 정영훈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서기관 선원표(4.28)

직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대능건설주식회사(사장 박후근)
 ▲주식회사부흥(사장 이상천)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사장 박성태)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회장 이환범)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사장 정도화)
 ▲주식회사삼안코퍼레이션(사장 이상주)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회장 최석환)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용렬)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박학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성식)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효식)
 ▲마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재열)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정전)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상봉)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봉훈)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대중)
 ■개인
 ▲강호석씨(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덕봉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권오윤씨(주식회사재양인터내쇼날 사장)
 ▲김기욱씨(전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김승련씨(한국해양오염방지조합 환경본부장)
 ▲김시문씨(전 수산청 차장)
 ▲김영환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김익중씨(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종규씨(전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장)
 ▲김하섭씨(전 선박검사기술협회 관리본부장)

▲문용근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병훈씨(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사연구소 기획과장)
 ▲민성규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장)
 ▲박문수씨(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 부회장)
 ▲박철훈씨(장흥군청 수산진흥과)
 ▲박해용씨(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박호성씨(진도군 수산과)
 ▲박희열씨(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
 ▲손광식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송예용씨(선박검사기술협회 관리본부장)
 ▲서승욱씨(전 수산청 시설국장)
 ▲신석순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안익성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사)
 ▲양명석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엄세용씨(주식회사중앙바이오텍 차장)
 ▲유영해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유혁근씨(주식회사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이남교씨(해양수산부 공보관실)
 ▲이승현씨(남영건설주식회

사 사장)
 ▲이용기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이용숙씨(전 수협중앙회 상무)
 ▲이윤환씨(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전호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회장)
 ▲이정식씨(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이준양씨(전 해양수산부 어선관리과장)
 ▲이태일씨(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전병하씨(전 수산청 서기관)
 ▲전충남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정대연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부사장)
 ▲정해용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조동영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사연씨(주식회사삼안코퍼레이션 전무이사)
 ▲조우연씨(전 해양오염방지조합 예산사업부 본부장)
 ▲최병원씨(한국어항협회 연구원)
 ▲최재학씨(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최진식씨(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
 ▲황철민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어항협회는 5월 15일 협회회의실에서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분야별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종합물류기능 갖춘 항만배후단지 본격개발

올해말부터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무역항에 종합물류기능을 갖춘 배후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항만시설범위에 포함하고 배후단지의 지정·고시 및 지원근거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법안 공포를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 하역·이동 등 전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확보에 치중, 대외무역의 물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배후단지 개발이 크

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시설범위에 안벽, 물양장 등 기본시설 외에 배후물류시설, 항만친수시설을 추가하고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안에 지원시설과 친수공간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무역항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배후단지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정·고시된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 변경, 토석·모래의 채취, 건축행위 등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로 지

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대상에서 해제토록함으로써 단지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등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중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해 주기로 했으며 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개정

항만법이 발효되면 재정부족 지방자치단체, 항만관련 사업자 등이 적극 참여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광양항 등 중심항만이 국제물류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항청소선 소식

6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	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선명	월	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6. 4 - 9	6. 18 - 23	원산, 고대도, 대천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6. 12 - 21		어란진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6. 11 - 16	6. 27 - 30	청산, 사동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6. 11 - 16	6. 25 - 30	신수, 맥전포, 국동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6. 11 - 16	6. 25 - 30	능포, 지세포, 능양, 삼덕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6. 11 - 16	6. 25 - 30	감포, 포항연안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6. 11 - 16	6. 25 - 30	거진, 아야진, 임원, 장호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 물레 버린 오늘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 모르게 오는 피해

전국 해안 미등록지역 국유재산으로 관리

해양수산부 올해안으로 160만평 취득

전국 해안가에 산재하고 있는 미등록토지 537만6천㎡(약 160만평)이 올해 안으로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되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의 해안가에는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최초의 토지조사(1910~1924년) 이후 본격적인 실태조사 및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상당량의 토지가 주인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들은 토지조사 당시에 측량착오 등으로 발생한 미등록토지 뿐만 아니라 불법 매립

과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및 퇴적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작년엔 전국 해안가에 소재하고 있는 이들 미등록토지 822만3천㎡(약 250만평) 6,571필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취득한 바 있으며, 올해 1/4분기에 실시한 전국 해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537만6천㎡가 추가로 신규 취득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정부예산 11억 3천만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이들

전체를 국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기로 했다.

작년에 이어 금년 중으로 약 160만평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게 될 경우, 그동안 사실상 '토지'이면서도 '공유수면'으로 관리되므로 인하여 이들 재산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던 각종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공시지가 기준 750억원의 재산을 추가로 국유화함으로써 연간 38억원의 세입확보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역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고 입찰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억원 미만 용역사업에 대한 적격심사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하기로 했으며 내달이후 발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억원 이상 용역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2억원 미만 소형용역사업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관련서류를 제출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착공

부산 감천항을 동북아시아 최대의 수산종합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가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이 지난해 12월 13일 기공식을 가진

뒤 지난 6개월 동안의 공사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나오는 대로 착공한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 1,294억원, 시비 184억원, 농안기금 370억원 등 총 사업비 1,848억원을 들여오는 2004년 5월 준공된다.

토록 했다.

또 기술과 가격의 배점비율을 종전 30:70에서 10:90으로 조정, 사업수행실적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2억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도 대형용역사업의 심사기준을 적용, 신생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

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며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입찰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과 함께 전자입찰 도입을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중이며 모의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시설 용역사업에 대한 전자입찰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관리형어업 7월부터 시범실시

자율관리형어업이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에대한 사업실시요령을 마련하고 우선 지방해양수산청 기술지도를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제도를 보완,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

정, 7월부터 내년 10월말까지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체는 일선 수협조합을 비롯 어촌계 부락 어업단체로 하며, 대상사업은 노획된 어장저질 개선 및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개선사업과 어구어법의 제한, 출어일수 및 조업시간 단축 등의 어획 강도 감축 그리고 어가유지를 위한 동시출어척수 조정 및 생산량 조절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산기술관리소별로 2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되 신청이 많은 경우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용역사업 적격심사 평가기준 대폭완화

해양수산부는 용역입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억원 미만 용역사업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소

떠있는 인공섬 기술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도 해상물류기지, 해상도시 등 대규모 인공해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본격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불리는 새로운 해상공간은 평탄한 강재구조물로서 수백만평까지 조성이 가능하며, 해상에 떠있게 되어 해수순환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동과 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해양공간이다

제도보완으로 민자유치 '순항'

IMF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항만개발의 민자유치가 부산신항과 목포신외항 착공에 이어 금년부터 광양항 인천북항 마산항 목포신외항(1-2단계) 포항영일만신항 등에서 총 8,2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간투자가 미진했던 항만개발이 최근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서 정상적으로 순항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광양항 2단계 및 3단계 11개 선석의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민자유치 입찰에서 홍콩 허치슨 포트홀딩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3개사의 컨소시엄이 단독응찰함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쳐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본격 개발키로 했다.

또 광양항 민자유치와 함께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인천북항 고철부두 민자유치 사업(5만톤 3선석/1,383억원)은 다음달 말로 협상타결이 예정되어 있어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항 클린포트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2,200억원 규모의 마산항 1-1단계 다목적부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평가작업의 과정을 거친후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면 연내 협상을 타결, 내년부터 2~3만톤급 5개선석 부두 건설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년말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등으로 협상이

결렬된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사업(2만톤 4선석/2,300억원)은 당초 9선석에서 4선석으로 축소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으며 오는 7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항만시설 투자 대폭 확대키로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물류경쟁에 대비한 항만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SOC투자비 가운데 현재 7%에 불과한 항만투자비율을 10% 이상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항만시설 확보율을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재정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SOC투자예산중 항만투자비율을 현재 7%에서 10% 수준으로 늘려 연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교통세의 항만배정비율을 상향 조정해 정부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수요자 중심 및 사업성 위주의 민자유치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산절감 수범사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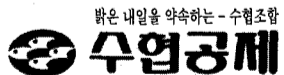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발전을 위한 항만건설부분의 투자재원 확대에 따라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예산절감, 항만기술발전과 품질확보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약하였거나 공사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 감소 및 기타 동일한 수준의 목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당초계획에 비해 예산을 절약한 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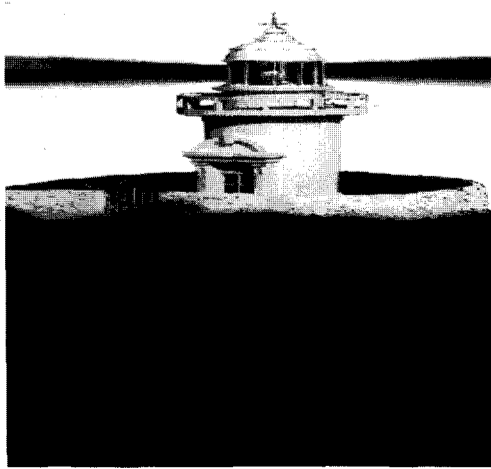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전 산하기관 및 단체에 예산절감 사례 실적을 파악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올해말까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및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항만공사 예산절감 수범사례 발굴로 자발적인 예산 절약을 유도하고 항만분야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제안자의 값진 노력을 정당히 보상함으로써 예산 성과금 제도 홍보와 참여 기회의 활성화, 항만건설 기술인의 기술발전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 인식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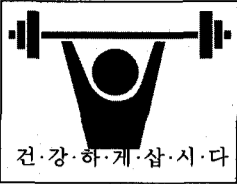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킴이입니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운동과 요통

준비운동 습관화 해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운동을 생활화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허리를 다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야구 농구 씨름 달리기 등 운동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허리가 받쳐 주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잘 할 수 없다. 운동을 할 때는 허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만큼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다.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 주로 쓰이는 근육이 다르다.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요통에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크게 나누면 주로 요추 전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되는 요통(전굴장애형 요통)', '허리를 비트는(회전) 행위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요통'(이것은 척추사이 관절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 등이 있다.

또한 X선 검사를 통해 화상으로 이상유무를 찾아낼 수 있는 유형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 안 되는 유형의 요통(후굴장애형 요통)'인 요추부리증으로 인한 요통이 많이 나타난다.

이밖에도 추체 종판(終板) 장애나 추간판 장애로 인한 요통 따위도 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되는 전굴장애형 요통이 발생하기 쉬운 운동종목으로는 아

이스하키,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이 꼽힌다. 이런 유형의 요통치료와 재발방지, 예방에는 허리굽이를 유지하는 요법인 LLTS 요법이 효과적이다.

또 허리의 비틀림 때문에 요통이 일어나기 쉬운 운동에는 배구 농구 핸드볼 골프 따위가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즐기는 골프의 경우 힘찬 드라이버 샷을 하다가 허리가 비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로 충분한 사전 준비 운동없이 샷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유형의 요통이건 그 원인에 맞는 치료가 중요하다. 이들 각 종류에 직접 연관된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배근육이나 등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추나 다리의 스트레칭, 또는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요통의 대부분은 운동자가 충분한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많이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살을 빼다가거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현재 본인의 육체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는 것을 필수화 한 다음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지혜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5)

第4章 地盤改良工

샌드컴팩션파일의 타설방법은 충격식에서 진동식(vibro식)으로 바뀌면서 그 시공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였다. 최근에는 샌드컴팩션파일(sand compaction pile) 공법이라 하면 진동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공법은 진동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 스트롱샌드 파일공법(S.S.P공법, N.T.K공법), 혹은 맘모스폼포저공법(M.C.P공법) 등으로 분류된다. 그림 4.4.2에 충격식 및 진동식의 S.S.P공법과 M.C.P공법의 개념을 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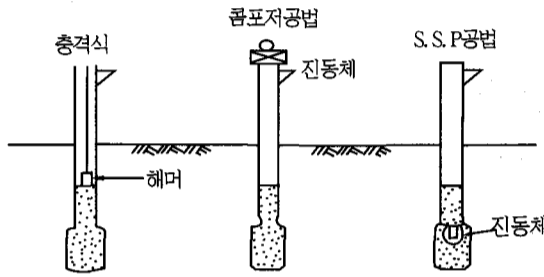


그림 4.4.2 충격식과 진동식(S.S.P.와 M.C.P) 공법

4.4.2 표준적인 시공순서

샌드컴팩션파일공법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를 그림 4.4.4에 도시한다.

4.4.3 시공방법

(1) 규격의 결정
샌드컴팩션파일(sand compaction pile)의 시공은 샌드컴팩션전용선으로 한다. 선단의 구성은 대체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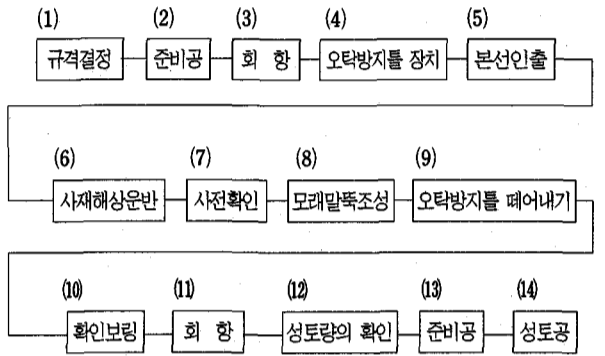


그림 4.4.4 샌드컴팩션파일공법의 표준적인 시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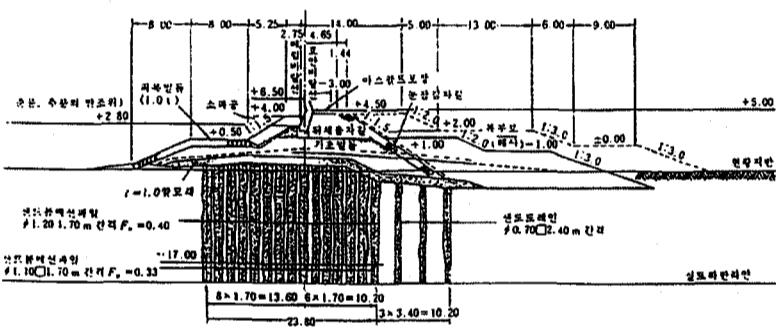


그림 4.4.3 샌드컴팩션파일공법에 의한 시공예

4.4.1과 같다. 이 중 샌드컴팩션선, 모래저장선 및 거트선이 주요 선박이다.

어항공사에 있어서는 한 공사당의 시공량이 적고, 공사구역이 협소하며, 수심이 얕은 등의 경우에는 표 4.4.1에 보이는 일반적인 선단구성에 샌드컴팩션파일선과 거트선의 조합에 의한 시공에도 있다.

표 4.4.1 해상시공의 선단규격

선	종
샌드컴팩션선 (SCP선)	
모래저장선	선
거트선	선
보조작업선	선
예인선	선
양묘선	선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90%가 넘지만 상당수 국민은 아직도 전·월세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원인이겠지만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빈번히 직장을 이동하고 자녀의 분가나 타 지역의 학교 입학 등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계약 능력 부족과 임대인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해 임대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정부에서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서민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81년 3월 5일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으나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이를 잘 알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분쟁 많은 전·월세, 똑부러지게 계약하는 방법

생겨 더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당초부터 2년간 계약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약정한 내용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여부의 통지는 임대인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하고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최근 많이 이용되는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연속해서 2개월간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임대인이 집을 비우도록 요청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2년 계약 기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등 손해 배상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주와 주민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획득. 저당권 등 선순위의 권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후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임차 기간에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다.

제3차권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매매·중여·경매·공매 등에 의한 취득자), 용익권 취득자(전세권·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 기타 근저당권자·압류채권자 등을 말한다.

대항력 발생 시기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이다. 만약 전세 계약을 해 2001년 5월 1일자로 주택을 인도 받았고 3일 뒤 5월 4일자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했다면 대항력 발생일은 5월 5일이다. 반대로 전입 신고는 5월 1일에 했으나 주택 인도는 5월 4일에 받았다면 대항력

발생일은 마찬가지로 5월 5일이다. 따라서 전입 신고한 날과 은행의 근저당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한다. 동거 가족만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가족 모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본인만 주소를 옮긴 경우도 점유 보조자에 의한 사실상 점유로 인정되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번지까지 기재해 전입 신고를 하면 되고 편의상 부여한 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는 전대차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 후에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마치면 임차권의 양도로 보아 대항력이 유지된다.

미니 정보 확정일자란 그것을 받는 날에 어떤 문서 즉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에 찍어야 하며 비용은 1천원 내외다.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분실하면 입주와 주민등록 사실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확정일자를 찍어준 공증기관을 통한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는 있으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 갖추면 우선변제권 획득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시에 경락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 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만 갖추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버틸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생기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될 경우 배당 신청을 하거나 임차 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한 후 경매 낙찰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갖춰야 하므로 입주하는 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생활정보

생활정보